

# “하이패스로 후 내서 주문·결제”... KB, ‘테크핀’社 전환

## 카드의 디지털혁명

### KB국민카드

금융권의 ‘플랫폼 경쟁’이 뜨겁다. 거대 ICT·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도 활발해졌다. 기존 금융사가 제공했던 서비스만으로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주요 카드사들이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를 넘어,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로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주요 카드사의 디지털 전략과 특징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KB국민카드

### 테크핀기업으로 비즈니스 구조변경 데이터 신사업·분석 역량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인재 발굴

KB국민카드는 올해 초 ‘테크핀 기업’으로의 비즈니스 구조 전환과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Data Driven Marketing)’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데이터 신사업 및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와 상품·마케팅간의 유기적 협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커넥티드카 시범 서비스’는 이 같은 디지털 혁신에 대한 KB국민카드의 포부를 보여준다.

커넥티드카 솔루션 기업 ‘오윈(Owin)’과 손잡고 ‘하이패스형 디지털 전자카드’를 활용해 출시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자동차 안에서 위치 기반 주문과 자동 결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KB이노베이션 챌린지’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사업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

디지털 전자카드(하이패스 카드)를 통해 부여 받은 자동차 식별번호(Car ID)와 사용자 정보 등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오윈 픽(Owin Pick)’에 등록하면 자동 주유 및 식·음료 결제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11월 말까지 자사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며, 서비스 기간 중 나타난 보완 사항을 비롯해 참여 직원과 가맹점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을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커넥티드카 시범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장착 없이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성공적인 위탁 테스트를 위한 지원과 협업을 강화해 핀테크기업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고객에게 지속

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재양성·협업으로 디지털 체력 UP 디지털 인재양성과 협업은 KB국민카드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원동력이다.

우선 KB국민카드는 ‘KB 이노베이션 챌린지(KB Innov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내재화하고, 카드 사업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첫선을 보인 이 프로그램에서 임직원들은 당면한 사업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서로 경쟁해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낸다. 채택된 솔루션은 나아가 구체적인 신상품과 서비스 콘셉트로 발전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3월 이 같은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42건의 제안 중 임직원 추천과 평가위원

회의 평가를 거쳐 7개 아이디어를 1차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KB국민카드의 ‘퓨처나인(FUTURE9)’은 KB이노베이션 챌린지와 더불어 미래 생활 혁신을 선도할 신생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17년 첫선을 보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KB국민카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주거·음식 ▲뷰티·쇼핑 ▲모빌리티 ▲헬스·웰니스 ▲엔터테인먼트 ▲교육 ▲디지털금융 ▲여행 ▲반려동물·커뮤니티 등 총 9개 생활 혁신 분야에서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해 혁신적인 역량을 지닌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협업과 투자 지원 활동을 펼친다.

프로그램 참가 기업은 KB국민카드와의 공동 사업 추진과 함께 KB국민카드가 보유한 플랫폼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마케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향후 빅데이터의 융합과 사업화를 희망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인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테크핀’이란?

‘금융(Fin)+기술(Tech)’의 합성어인 핀테크(Fin Tech)를 앞뒤만 바꾼 용어로, 핀테크가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기술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이룬다면 테크핀은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기술에 금융을 접목한 개념이다.

## 중소협동조합법 60년만에 전면개편

# ‘공동행위’ 담합에서 배제

조합 자회사 쉬워지고 인증제도 추가

중소기업들이 모여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6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중기협동조합의 숙원이었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배제하고, 조합의 자회사 설립이 더욱 쉬워진다. 부실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과 우수 조합에 대한 인증제도가 생긴다.

조합이 공동스마트공장을 구축해 회원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도록 하고,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도 확대한다.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유형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내에 50억원 규모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중기협동조합 전용정책자금도 새로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1차 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기획

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4개 중앙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중기중앙회장, 벤처기업협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위촉직 14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2018년 기준으로 940개인 중기협동조합 숫자를 2021년 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조합원인 소속 중소기업 숫자도 7만2000개에서 8만개까지 늘어난다. 공동사업 수행비율도 기존 76%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62년도에 만든 중기협동조합 제도를 이번에 확 뜯어고친 것은 자금, 인력, 기술 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결국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장점이자 지향점인 ‘공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부여 검토 ▲원·부자재 공동구매 확대를 위한 보증 규모 확대(1500억→6000억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공동판매 촉진 ▲공동사업 자금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김승호 기자 bada@



LG화학의 오산 테크센터 조감도

/LG화학

## LG화학, 국내 최대 석유화학 전문 테크센터 신축

경기도 오산에 1100억 투자 이전

LG화학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전문 테크센터를 신축했다.

LG화학은 경기도 오산에 총 1100억 원을 투자해 기존 대전 기술연구원 부지에 있던 테크센터를 신축 이전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테크센터는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사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솔루션 지원과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LG화학만의 차별화된 TS&D(Technical Service & Development) 전문 조직으로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이번에 신축한 오산 테크센터는 축구장 6개 크기인 약 1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약 7000평 규모의 5층 건물로 지어

졌다. 이는 TS&D 전용 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오산 테크센터에는 파일럿동·실험동·사무동 등 주요 연구동과 60여개의 특성화된 실험실 및 전시실이 있다. 신제품 개발 및 실험 설비로 사용되는 파일럿 시설의 경우 회사의 평균 생산설비 규모 수준을 갖췄다.

손옥동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오산 테크센터 설립은 고객과 인접한 거점에서 한 발 앞선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진정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15년 중국 광둥성에 설립된 화남 테크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고객에게도 진정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니컬 서비스 매카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내년 기초연구 1.5조 투입” 과기정통부, 시행계획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5200억원이 지원되는 ‘2020년도 기초연구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기초연구 사업을 위해 개인연구 1조2408억원, 집단연구 2789억원 등 전년 대비 3191억원 증액된 1조5197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기초연구 사업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평가를 통해 지원받는 자유공모형 사업이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젊은 과학자 등 우수연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사후 연구원, 신임 교원 등을 지원하는 ‘신진연구사업’의 연구비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과제수도 올해 591개에서 내년 765개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연구자를 지원하는 ‘중견연구 사업’은 연 4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상반기 신규과제를 올해 961개에서 내년에 1300개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분야 개척, 주력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